



The Quinquennial; 프란치스칸 청년 위원회 활력소

최근 프란치스칸 청년 위원회로 보낸 시간을 돌아보면서 처음에 선택한 ‘일치, 점화, 초대’의 주제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TAU USA 2018 봄호 94 번)

Quinquennial 의 참석자들과 우리의 발표와 부스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느꼈던 열정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향했던 YouFra 의식과 존재의 약속을 복돋아주고 확인시켜주고 주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까?

가상 모임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반년 동안 함께 하면서 화상을 통해서만 얼굴을 맞대었지만 분명히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마침내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우리의 ZOOM 모임이 계속 될 것인지 물었을 때, 같은 목적과 기도, 젊은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목표의 공통된 이해 안에서 우리가 하나될 수 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회장, 애니메이터 및 관심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상황이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낸 우리는 같은 사명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려움, 우려, 장애물은 미국 전역에서 비슷하지만,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있습니다.

뜨거워졌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는 몰랐던 열정이 있습니다. 임기가 시작될 때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낙담, 두려움, 무관심, 무력함을 느꼈지만, 가상 모임을 통한 우리의 활동은 점차 우리가 열정과 용기를 ‘점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왜 되지도 않을 일을” 또는 "할 수 없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듯이 이것은 하느님의 일이고,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손과 발, 목소리, 메신저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과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불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떼제 기도의 저녁, 제시 마니부산의 음악회에 참석하거나, 봉사 프로젝트에서 담요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젊은이들이 기쁘게 봉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넘치는 열정은 위원회 팀에게는 우리가 젊은이들의 세계로 발을 디딘 열정에 불을 붙이고 있는 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초대하였습니까?

우리의 세번째 목표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교육, 기도 서비스 및 네트워킹에 참여를 위해 지역, 개인 및 형제회를 초대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갓고 젊은이들을 복음의 삶으로 초대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며 우리는 그 여정에서 그들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YouFr 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채우는 아름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올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더 크고 다양한 청중을 초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가톨릭 사회 정의 활동을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때 정의, 평화, 창조의 통합 애니메이터를 초대합니다. 젊은 천주교인들에게 중요한 주제를 주의를 기울일 때, 초대는 양성봉사자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저녁 발표로 의미 있는 기도 경험을 계획하며 영적 보조자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통해 회장과 FY/YA 애니메이터의 노력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합하고, 점화하고, 초대하는 우리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씨 마니부산의 Quinquennial 공연 중 기도로 하나되고 열정에 뜨겁게 하고 모두를 노래로 초대하는 애니메이터 로리 힌커, 청년위원회원 캐서린 모라로, 희서 처니악이